

「고전 무협서사와 서구 좀비물의 만남」에 대한 토론문

토론: 김지선(고려대)

최진아 선생님의 발표 흥미롭게 잘 들었습니다. 전기 및 환상적 서사에 대한 연구를 꾸준히 해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에 토대를 두고 한국의 문화콘텐츠 좀비물과 연결하여 연구의 영역을 확장시키신 것을 보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개인적으로 영상문화 관련하여 특별한 지식이 없지만, 그저 중국 고전소설을 연구하는 입장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드라마 <킹덤>을 보면서 가장 감명이 깊었던 대사는 좀비에 대해 “그들은 산 자도 아니고 죽은 자도 아니다.”라고 묘사한 부분입니다. 이승과 저승의 경계에 있는 존재로 묘사하였던 것이 <킹덤>표 좀비의 가장 큰 특징이 아닌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원적 세계에서 바라보는 타자적 존재라기보다는 중간적 존재로서 좀비를 묘사하였던 것이 가장 매력으로 다가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구의 좀비와는 다른, <킹덤>이 그려내는 좀비의 특징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2. 무협서사는 동아시아 영웅 서사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서사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과 ‘악’의 구분보다는 ‘의’와 ‘충’의 사유로 움직이는 자들의 이야기이기에 그리스 영웅 신화나 히어로물의 영웅서사와는 전혀 다른 성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킹덤>이 흥행을 할 수 있었던 원인도 서구적 상상력에 토대를 둔 영웅서사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영웅의 모습을 나타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발표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 중에서도 <킹덤>이 동아시아 영웅 서사, 기존의 히어로물과는 다른 서사적 힘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3. 2번과 연결하여 조금 더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중국에서 <킹덤>이 인기가 있었던 이유도 伥鬼나 僵尸 등 유사 좀비 이미지 때문이라기보다는 동아시아 전통에 기반한 서사적 틀, 사유 등에서 익숙함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소한 하나의 제안을 하자면, 伥鬼는 호랑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문화가 전해지는 한국의 상황과 연결해서 논의를 확장해나가면 어떨까 합니다. 虎患은 전염병처럼 가족과 이웃에게 이어진다고 여겨졌고, 전염을 막기 위해 虎食葬이라는 장례를 치렀던 흔적이 전국 곳곳에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상상력은 박지원의 소설 <虎叱>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의 좀비 서사물이기 때문에 <킹덤>과 좀비, 虎患, 바이러스의 전파 등과의 상관성에서 논의가 이루어지면 더욱 의미 있는 연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